

가정과 청소년

모든 행복은 대화로 통한다

김학순 | 경향신문 신문발전연구소 소장

행복한 가정의 비결 가운데 첫번째로 꼽힌 것도 가족간의 대화이다. 가정의 모든 행복은 바로 '말'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에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즐거운 나의 집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언제나 즐겨 부르는 노래 '즐거운 나의 집' (Home, Sweet Home)의 가사를 쓴 존 하워드 페인은 역설적이게도 일생 동안 단 한번도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라는 더없이 포근하고 정겨운 노랫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국 워싱턴이 고향인 그가 이 노래를 지은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무일푼의 처량한 신세에 놓여 있을 때였다. 가정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자신의 소망을 노랫말에 담은 것이다. 1851년 3월3일 C. E. 크르크라는 절친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다. '정말 이상한 얘기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다

오. 아마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고 말 것이오. 그는 이 편지를 쓴지 1년만에 떠나면 이국땅인 튀니지에서 길가에 쓰러져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그런 페인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숨을 쉬고 살아 산소의 귀중함을 실감하지 못하듯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가정의 소중함은 자녀, 특히 청소년 시절의 자녀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가정의 모든 행복은 '말'에서 출발

가정의 모든 행복은 '말'에서 출발하고 말에서 끝난다고 해도 결코 과한 말이 아닐 게다. 청소년 시절의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닌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웅변하는 예화가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시골 천주교회에서 주일 미사 도중 신부를 돕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하여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다.

신부는 소년의 뺨을 때리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그리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라'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 곳 신부는 그 아이를 사랑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세월이 흘러 성당에서 쫓겨난 소년은 공산주의 지도자가 된 뒤 강력한 전제정치를 펼쳤다. 요시프 브로즈 티토 유고 대통령이 바로 그다. 격려를 받았던 또 다른 소년은 신부의 예견대로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다. 홀튼 신 대주교가 그 주인공이다. 어쨌든 대통령이 되었으면 더 나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올바르게 성장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을 이루느냐가 평가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도 이와 흡사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요즘 한 텔레비전 광고의 인상깊은 대사(臺詞)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 청년이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자그마한 회사에 취직해 첫 출근하는 길에 만난 동네 가게 아저씨가 하는 말이 멋지다. "크기가 무슨 상관이야. 가서 크게 키워"

행복한 가정의 비결, 대화에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성직자, 심리학자, 가정상담가, 교육자 등 지식인 500명의 의견을 토대로 쓴 베스트셀러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란 책에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 9가지 가운데 첫번째 손가락에 꼽힌 것도 가족간의 대화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와 자녀간에 대화가 많을수록 성적이 올라간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돼 눈길을 머물게 한다. 당연한 듯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 같은 결과를 도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2년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주목할만한 또 다른 사실은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부모보다 자녀가 올바른 품성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점이다.

문제 청소년의 공통점은 부모가 자녀에게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자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자녀가 어떻게 들었느냐이다. 어떤 경우든 자녀들이 어떻게 들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비교적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 3학년과 2학년이 된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대목의 하나다. 가정은 점수경쟁에 여념이 없는 잘못된 학교의 연장이어서는 안된다. 치열한 경쟁사회의 연장이어서는 더욱 안된다.